

'임실치즈마을 드림랜드' 25일 개장

중국 염성시 대표단, 남원 방문

‘민관 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 첫 결실…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본격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실외 놀이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드림랜드'가 2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장한 드림랜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민관 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민관 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의 투자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이 기반시설을 지원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농촌테마공원 일원에 놀이와 휴양, 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드림랜드는 민간사업자인 ㈜드림레저가 30억원을 투자해 임실을 급성리 농촌테마공원 내 8,073㎡ 부지에 조성했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놀이시설은 허리케인, 바이킹, UFO, 회전목마, 회전그네, 스윙거, 피크닉, 귀신의 집, 뮤직익스프레스 등 총 9종으로 구성돼 다양한 연령층이 스킨과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실외 놀이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드림랜드'가 2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매점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정미원 등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권은 1기 중·3기중·5기중·7기중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개인 기준 소인 3,500원~1만8,500원, 대인 4,000원~2만원이다.

군은 드림랜드 개장을 시작으로 숙박시설과 카페, 자연놀이터 등을 포함한 복합휴양공간 '플레이힐'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놀이와 휴양, 숙박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완성하고,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드림랜드 개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 낸 상생 협력의 첫 결실이자 임실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놀이와 휴양,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다시 찾는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경천 두물머리 공원 바닥분수 운영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군민들을 위한 수변 휴식공간을 운영한다.

군은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순창을 남계리 두물머리 공원 내 바닥분수 물놀이수경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닥분수 운영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군민들



에게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피서공간을 선물하고, 경천 일대를 명품 친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30일간이며,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30분 단위로 가동된다. 단, 시설 점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점심시간(12:00~13:00)과,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한 정기 물 교체 및 시설 점검이 진행되는 매주 월요일은 휴무한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소방서, 제복 공무원 자녀 캠프 안전 확보

남원소방서는 지난 22일 지리산 유스 캠프에서 대형 화재 및 다수 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실전형 재난대응 가상훈련'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지리산 유스캠프에서 진행되는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의 안

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캠프 시설 내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약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을 부여해 진행 대원들은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임시 응급의료소 설치 및 가동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응급



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 등 체계적인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국 염성시 대표단, 남원 방문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상생발전 협력 방안 모색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염성시 대표단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996년 6월 13일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30년간 이어온 두터운 우정을 기념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 강소성 중동부에 위치한 염성시는 인구 720만 명 규모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온 등 다수의 한국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남원시와 지난 30년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며, 올해 4월 염성시 대표단이 남원 춘향제를 찾는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남원시 대표단이 염성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교류 협력 심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탕징 부시장을 비롯한 염성시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2일 남원에 도착해 광한루원, 피오리움, 시립김병종미술



관 등 남원의 주요 명소를 관람, 23일 오전에는 양 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남원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남원시의 화장품과 염성시의 백주 등 각 지역 특산품을 기념 선물로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의를 확인, 이어 대표단은 남원의 신성장 동력인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염성시와의 인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바이오와 뷰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주요 부서 대상 업무보고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동환(사진))는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공정한 인사행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정 현안을 점검하며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오동환 위원장은 전복대 글로벌컬퍼스 추진 상황 검토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통한 민생예산 집중 투입을 촉구하고, 최형욱 위원장은 시각·농아인 등



특수장애인을 위한 전용 경로당 설치 등 맞춤형 복지 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며, 손종열 위원은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청렴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마우천 위원은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한 세입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김정현 위원은 공공의대 남원 유치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으며, 노현이 위원은 주민배심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공약 만족도를 높일 것을 제안, 전인숙 위원은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 설명과 2030년 완공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국제학술대회서 전통 장류 우수성 알리

(재)순창군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전통 장류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NF)가 지원하는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장류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K-푸드의 세계



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진흥원은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 '전통 장류의 기능적 특성 및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도 심포지엄을 직접 주관해 운영하며 학계와 산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 산내면서 '맹구알 버섯' 13년 연속 발견

세계적인 희귀종 '맹구알 버섯'이 올해로 13년 연속 남원시 산내면에서 발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위치는 산내면 임박마을 주지환(63) 이장의 복분자 농장으로 지난 7월초 올해 첫 맹구알 버섯을 발견했으며, 2014년부터 13년 연속으로 꾸준히 맹구알 버섯을 발견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으나 이처럼 한 지역에서 꾸준히 나온 경우는 드물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맹구알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 들판,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하며, 지혈과 해독, 남성 성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급식관리 지원 범위 넓히다

임실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과 명칭 변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어린이 급식소 지원 기능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지원 기능을 더해 통합 급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회원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이 이루어졌으며,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를 통해 센터는 확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